

통일부·경기도·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, ‘2026 DMZ OPEN 에코피스포럼’ 공동개최(10.28.)

- 프랑스 지리학자 발레리 줄레조 교수 기조연설, 통일부 장관·경기도지사 기조대담 등 국내외 석학 한자리에 모여 평화 담론 펼쳐
- DMZ 평화적 이용부터 동북아 평화 협력까지... 공식 홈페이지 통해 사전 참가신청

【관련 국정과제】 118.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

- 통일부와 경기도,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오는 10월 28일 소노캄 고양에서 ‘2026 DMZ OPEN 에코피스포럼’을 공동 개최한다.
 - 이번 포럼은 ‘평화공존의 길을 열다’를 주제로, 국내외 석학과 국민 등이 참여하여 한반도 평화와 생태의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된다.
 - 특히, 올해는 통일부와 경기도, 독일의 대표적인 정치 재단인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가 주관하는 만큼, 정부와 지방자치단체, 국제사회를 아우르는 다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평화 담론이 논의될 예정이다.
- 행사는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기조세션, 평화·생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.
 - 오전 기조세션에서는 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원(EHESS)의 발레리 줄레조 교수가 ‘평화의 길 의미와 잠재력: 비무장지대(DMZ)를 따라 지리학적 몽상’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다. 이어 통일부 장관, 경기도지사,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및 기조연사가 함께 무대에 올라 깊이 있는 기조 대담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포럼의 막을 올린다.
 - 오후에는 통일부와 에버트 재단, 경기도가 각각 주관하는 3개의 세션이 개최된다. 통일부가 주관하는 첫 번째 평화세션은 최영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(전 통일부 차관)가 좌장을 맡았으며, ‘DMZ의 평화적 이용과 협력 방안’을 주제로 롤랑 드 크루송 AFP 기자, 펠릭스 글렌크 한스자이텔재단 한국사무소 대표, 강민조 국토연구원 한반도·동아시아 연구센터장 등이 발제와 토론을 진행한다.

○ 이어 에버트 재단이 주관하는 두 번째 평화세션은 문아영 피스모모 대표가 좌장을 맡아 ‘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공존을 위한 대화: 아시아와 유럽의 시각’을 주제로 최종건 연세대 교수, 댄 스미스 유엔군축연구소 수석 연구원, 사요 사루타 신외교이니셔티브(New Diplomacy Initiative) 대표 등이 라운드테이블을 갖는다.

○ 경기도는 생태세션으로 ‘동북아 스마트 생태도시 국내 세미나’를 연계 개최하여 ‘한반도 생태평화협력: DMZ에서 시베리아까지’를 주제로 추장민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, 고경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등과 함께 논의를 진행한다.

□ 이번 포럼은 현장을 찾는 국민과 청년들이 DMZ의 생태·평화적 가치를 체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으로 꾸며진다. 특히 행사장에는 통일부가 제작한 ‘DMZ 빅게임’* 체험존이 설치되어 방문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, 현장 참여자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와 기념품 지급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.

* DMZ의 다양한 가치에 대해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는 참여형 교육·체험 콘텐츠

○ 참가 희망자는 DMZ OPEN 에코피스포럼 공식 홈페이지(www.dmzefp.co.kr)를 통해 사전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.

□ 통일부와 경기도 관계자는 “이번 포럼은 통일부, 경기도,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등 국내외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DMZ의 가치를 학술적·정책적 실천으로 확장하는 뜻깊은 자리”라며, “많은 국민과 청년들이 함께 참여해 평화와 공존의 미래 비전을 그려보기를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붙임 : 「DMZ OPEN 에코피스포럼」 포스터

담당 부서	평화교류실 접경협력과	책임자	과 장	백혜경 (02-2100-5840)
		담당자	사무관	홍정민 (02-2100-5842)
	경기도 평화협력과 평화기획팀	책임자	과 장	우병배 (031-8030-2410)
		담당자	팀 장	박규식 (031-8030-2411)
			주무관	문이슬 (031-8030-2415)







공식 홈페이지

DMZ OPEN ECO PEACE FORUM

평화공존의 길을 열다

Paving the Way for Peaceful Coexistence

일시 2026. 10. 28. (수) 장소 소노캄 고양



기조강연 | 발레리 줄레조 교수
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원 (EHESS)
DMZ 평화의 길을 직접 탐구한 저명한 지리학자
한반도 접경지역과 남북 평화공존의
새로운 지리학적 가능성을 제시할 석학

